

# 다니엘기도회뉴스



오늘의 강사  
**임현수 목사**

## 감사를 표현합시다

- 누가복음 17:11-19 -

· 현)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목사



내일의 강사  
**조세원김 교수**

· 현) 허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다니엘기도회 이벤트



### 다니엘기도회 인증샷! 포토제닉

다니엘기도회 참석을 알 수 있는 인증샷을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 다니엘기도회 간증

다니엘기도회 기간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원고를 받습니다.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grace@oryun.org  
(이름, 소속,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 다니엘기도회 에티켓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



1 자리 잡아주지 않기



2 가운데 앞좌석 부터 앉기



3 음식을 반입 하지 않기



4 휴대전화 전원은 꺼놓기



5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기



6 안내위원회에 협조하기



7 대중교통 이용하기

Daniel Prayer Etiquette

## 2017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 <주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 <일시>

11.1(수)~11.21(화)  
오후 8:00~10:00

### <장소>

#### 영아부

지하 1층 영아부실

#### 유아·유치부

제1교육관 지하 1층 사무엘홀

#### 저학년(1~3학년)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 고학년(4~6학년)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 하나님이 제때에 응답해 주실까?

사티쉬쿠마르 목사 - 요한복음 11:6 -

21일 간 만여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하는 곳은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그 많은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왜 기도해야 할까” 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밤늦게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TV 보기, 카톡 하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은 신앙이 퇴보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신조입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역까지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조그만 편이 자석에 붙으면 자석이 되듯이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과 늘 붙어있으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을 보호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울타리를 쳐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 자녀와 가정에 울타리를 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녀들을 기도 없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순간 마귀의 머리를 꺾을 수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깨어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맞으나 고난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든 떡을 떼기 전에도, 혼자 한적한 곳에서도,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중 앞

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나누십시오. 남편이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자녀 교육 때문에, 빛으로 힘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 짐을 어떻게 벗을까요. 낙타가 사막에서 더 이상 짐을 지지 못할 때 무릎을 꿇으면 주인은 짐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도 짐을 하나하나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큰 짐을 졌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모든 지략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엄청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가복음10:47에서 맹인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맹인은 소리 질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틀 동안이나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끔 침묵하실까요. 왜 내 기도에도 즉각 응답을 안 하실까요. 우리는 쉬지 말고 감사와 눈물로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눈물은 능력입니다.

손을 펴고 기억하세요. 엄지손가락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 검지는 목사님, 교사 등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 중지是国家의 지도자를 위해, 약지는 여러모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 새끼손가락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상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뉘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NO 내 이름으로 일컬으면 YES(대하 7:14)로 응답하십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죄가 가로 막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쥐고 계십니다.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버리고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라. 21일 다니엘기도회가 끝나는 날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은혜의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우리의 기도가 김도환 장로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김도환 장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장로교회의 1호 교인인 김도환 장로(60)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나아가던 김도환 장로는 4년 전,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 후, 6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한 김도환 장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동성장로교회를 개척한 이광섭 목사에게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도우면서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곁에 사랑의 동역자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광섭 목사 곁에는 언제나 김도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7월, 주일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또다시 쓰러진 김도환 장로는 뇌출혈 두개골 골절로 5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의식도 없이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온 교인들과 함께 특별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광섭牧사는 김도환 장로가 전과 같이 건강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강한 자극에 몸을 움찔거리게 되고, 눈을 깜빡이게 된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호전되어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너무도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더 많은 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장로의 몸의 상태와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한 재정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절실한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더해져 김도환 장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사랑의헌금 참여방법

이번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드러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선교사, 농어촌 및 미자립목회자, 외국인 등 수술과 치료, 긴급한 도움으로 160여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사랑의헌금 봉투  
매일 예배 시에  
헌금합니다

02



ARS 전화 후원  
1877-0110  
(휴대폰 소액결제)

03



온라인 헌금  
585-000711-01-069  
(기업은행) 오룬교회

04



스마트폰 헌금  
오룬교회 홈페이지(oryun.org)  
및 QR코드 참여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다니엘기도회 이틀전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내 앞에서 실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음날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고, 본당으로 가던 길에 토비아스 카페 옆에 2층 높이의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니엘기도회에 반드시 참여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니엘기도회 첫 날에 갑작스레 강원도 양양을 가게 되었다. 설악산으로 향하면서 혹시 기도회에 늦어지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몰려왔다. 하지만 기상변화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지 되었고 나는 그것이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음 알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2017 다니엘기도회였다.

기도회를 참여하는 내내 중보기도팀에 시어머니에 대한 기도제목을 나누었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다시 원래의 건강을 회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주에는 광화문 친정집에서 다니엘기도회로 향하던 중 미국 대통령방문으로 시내에 시위 진압 버스들이 준비하여 또 기도회에 늦으면 어쩌나 초조해 하며 교회로 향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기도회에 참여하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셨고, 항상 은혜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뿐만 아니었다. 소소한 나눔이기는 하지만 식사를 하지 못하고 기도회를 참여할 때

에도 지인들을 통해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작은 먹거리와 선물을 받았고, 이것 역시 기도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2017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매일 매일 영과 육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 은혜가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도 영원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질병 그리고 사고를 당했던 강사들이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을 들으며 이번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충성된 용사로서 살아가는 사명의 발걸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순장님의 권유로 평소 앉던 자리에서 조금 앞으로 자리를 잡으니 강단 오른쪽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문구를 내 마음에 되뇌여 보며 글을 마친다. "Be the proud witnesses of God"

강아영 집사 | 광진교구



**P 주차 안내**

- 주차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셔틀버스는 금요기도회 때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 교회 종직자들은 교회 외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고 운동장 주차차량은 꼭! 당일 출차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1 옥외주차장 2

보성고등학교 주차장 3

